대구주보

부활 제3주일(이민의 날) 2017. 4. 30.(가해) 제2049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루카 24,13-16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비마다 함께하십니다. 볼 수 없으나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사도 2,14.22ㄴ-33 **제2독서** 1베드 1,17-21 **복 음** 루카 24,13-35.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ㅇ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느님 사랑 체험이고,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기환 사무엘 신부 | 흥해본당 주임

저는 흥해성당 주임신부로 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새 성전을 지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2019년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흥해성당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해가 흥해성당 본당 설립 23주년인데, 흥해성당 공동체는 그동안 초대 이성한 베르나르도 신부님께서 지으신 조립식 성당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드디어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임신부인 저와 흥해성당 공동체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 건립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느님의 일이구나! 이 거룩한 일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해성당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고, 타 본당의 교우들도 이 거룩한 일에 기쁘게 동참을 하고, 많은 신부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 흥해성당 공동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은 신부님들과 교우들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우리 대구대교구 교우들도 저희 흥해성당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새 성전을 잘 지어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실망과 허탈감이 너무나 컸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낯선 나그네와 만나 대화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에 두 제자는 낯선 이를 초대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체득했고, 그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낯선 이를 대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이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다시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동 이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매년 거행하는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 이민, 특히 홀로 남겨진 아동 이민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동들을 돌보아줄 것을 모든 이에게 요청합니다. 이들은 어린이며 이방인이고 자기 방어 수단이 없어서 삼중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고국을 떠나 자신의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도와줄 것을 모든 이에게 요청합니다.

오늘날 이주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이주는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 차원의 비극적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주는 좋은 일자리나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찾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구하고 다른 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찾으려는 희망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와 관련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폭력과 가난과 환경 문제와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야기되는 이주의 혹독한 대가를 아동이 가장 먼저 치르게 됩니다. 아동 인신매매, 미성년자의 착취와 학대,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규정된 아동기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의 박탈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의 삶을 마주한 아동은 이민 가운데에서도 가장 취약한 무리를 이룹니다. 이 지경에서 수많은 무고한 아동의 미래는 불법과 폭력으로 단숨에 소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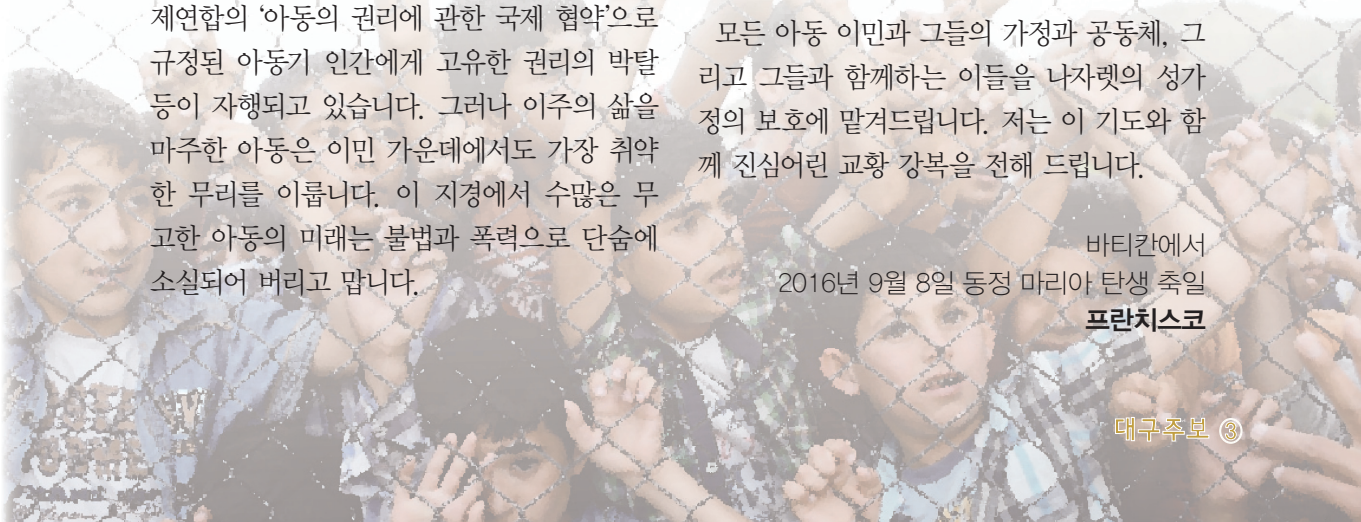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주 현상이 구원 역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 계명과 관련됩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탈출 22,20) 교회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묵시 7,9)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이방인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이주 현상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을 깨달을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보호, 통합,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주의 여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소중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또한 여러분을 필요로 하며, 여러분이 성심성의로 실천하는 봉사를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작은이들과 가장 취약한 이들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할 것을 요청하는 복음을 용감하게 실천하는 데에 지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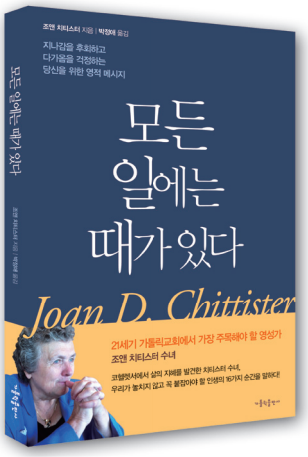
모든 아동 이민과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나자렛의 성가정의 보호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와 함께 진심어린 교황 강복을 전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16년 9월 8일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프란치스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가톨릭출판사



조앤 치티스터 지음 |
박정애 옮김 |
220면 | 12,000원

대학교 4학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듯 나 역시도 여기저기 입사 원서를 제출하던 때였다. 열정과 패기가 있어 보이도록 자기소개서를 썼지만, 사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들이 하니까 하고, 쓰니까 썼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곳에서 서류 전형이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사는 나름 인지도가 있고 연봉도 높았지만, 그곳에서의 내 모습은 부속품이 될 게 뻔했다. B사는 A사에 비해 인지도나 연봉이 낮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내 이야기를 어리석고 철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라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두 회사에 모두 합격했지만, 결국 B사를 선택했다. 가족들도, 주변 친구들도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그 선택이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의 선택으로 남들이 말하는 인생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삶에 담긴 의미를 찾고자 노력한다면 더 나은 삶, 온전한 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이러한 내 고민에 답을 주었다. 이 책은 '태어날 때, 잃을 때, 뿌릴 때, 수확할 때, 죽을 때' 등 코헬렛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인생의 16가지 순간이 평생 동안 반복해서 찾아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내야 하는지 깨달으면 나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조언한다.

나는 이 책에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이면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실패를 겪고 좌절하는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내 영혼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이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 하지 않을 자유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때의 선택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때였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어 수확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내 삶에서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올 순간들을 살아 내고 싶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성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신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사가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성사의 기본이자 바탕이 되는 세례성사를 칠성사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놓습니다.

부활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9) 고 사도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 후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는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며 교회의 직무인 예언직, 왕직, 사제직에 참여 하게 됩니다.

세례(洗禮)는 말 그대로 물로 씻는(洗) 예식(禮)입니다. 본래는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지만 점차 물로 이마를 씻는 예식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물은 죽음과 생명, 정화를 의미합니다. 홍수의 물이 죽음을, 가뭄 때의 물이 생명을 상징하듯이 세례성사의 은총을 통해 죄악에 물든 과거의 우리 자신은 죽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도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와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죄인 '본죄'를 모두 용서받아 깨끗한 몸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성사는 주교나 사제, 또는 부제가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라도 가톨릭교회와 같은 뜻을 가진다는 지향이 있다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하는데 세례 받을 사람의 이마에 물(자연수)을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 주는 세례성사를 '대세(代洗)'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자 그 응답에 대한 하느님의 선택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성사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시인 인호(印號)를 새겨 주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부르실 이름도 새롭게 짓게 되는데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던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고 받게 됩니다. 이는 그분을 수호성인으로 공경하여 보호를 받으며 그 분의 성덕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신의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의 축일을 자신의 영적인 생일, 즉 영명축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굉로

교구장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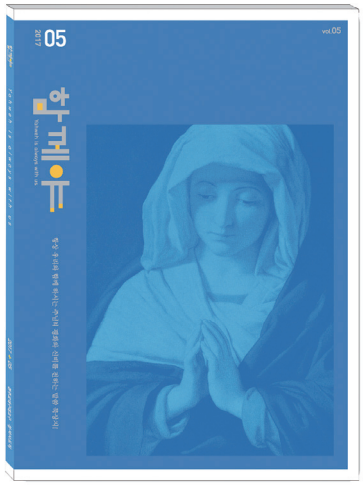
4.27(목) _ 가톨릭신문 창간 90주년 기념미사 (16시,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4.30(일) _ 주교님과 함께하는 젊은이의 날 (9시, 성모당 및 성김대건기념관 일대)

보좌주교 동정

4.30(일) _ 주교님과 함께하는 젊은이의 날 (9시, 성모당 및 성김대건기념관 일대)
4.30(일) _ 이주민을 위한 미사 (11시,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교구 및 기관 행사

4. 30(일) _ 제3회 주교님과 함께하는 젊은이의 날(성모당 및 성김대건기념관 일대)
학생주보기자단 5월 모임(11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5. 4(목) _ 재중국 사제 피정 파견미사(10시, 한티피정의집)
5. 7(일) _ 성소 주일 행사(신학교 개방: 오전 10시~오후 4시, 미사: 오전 11시, 오후 2시)



함께야
Yahweh is always with us

매일 복음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뜻을 새기는 말씀 묵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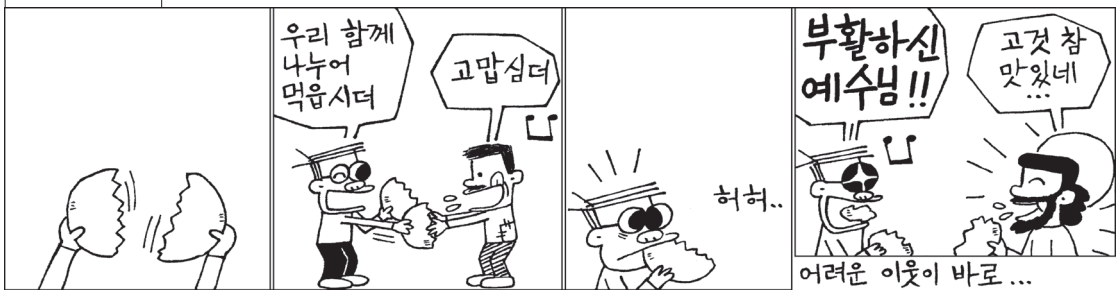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월간 '임마누엘'의 뜻을 이어 '**함께**'와 야훼 하느님의 '**야**'를 합쳐 만든 새로운 이름입니다.

판매가 : 2,000원 / **판매처** : 계산서원, 삼덕성당 임마꿀라따 성물방
정기구독 문의 : 교구 성서사도직 053)250-3082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고, 그날의 복음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성규 엘리지오



⑥ 부활 제3주일(이민의 날)

미 사 안 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5월 1일(월) 11:00 성동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5월 2일(화) 11:30 계산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5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5월 6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5월 6일(토) 11:00 성모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5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성소 | 피정

살레시오 성소 모임
기간: 5.6(토) 15:00~7(일) 1박 2일
장소: 서울 돈보스코청소년센터
문의: 살레시오회 성소담당, (010)3894-1332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자: 5.7(일)
장소: 춘천시립복지원
주제: 2017년 성소 주일 행사
문의: (010)3800-1579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5.7(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조대윤 신부, (010)3777-4688

가정선교회_성가정 영성 피정
일시: 5.3(수) 9:00~17:30
장소: 서울 동성고등학교
주례: 이병호 주교, 구요비 신부
강사: 윤창호F, 이현주, 김하중(전주중대사)
문의: (010)2367-2297 / (010)8991-337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
기간: 5.23(화)~25(목) 10: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대구 파동)
대상: 기도를 깊이 배우고 싶은 분,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분
문의: 김마리아 수녀, (010)2505-9545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기간: 6.9(금)~11(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교육 | 모집 | 기타

빛떼제 기도
일시: 5.13(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3526-1208

베네떼 청년성가단 6기 모집
일시: 매주 월 19:30, 베네인센터
대상: 교회음악, 합창에 관심있는 청년
문의: 툿찡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010)5918-3014

꽃동네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소 주일
일시: 5.7(일) 10:00~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상: 유치부~대학일반부
마감: 4.30(일) / 도시락 지참
신청: (043)879-0283 / (010)5464-1265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제12회 아이비캠프
기간: 7.23(일)~8.17(목) 25박 26일
내용: 영어 연수·IVY리그 대학 탐방
대상: 초4~중3(총 46명)
참가비: 700만원(일체비용 포함)
문의: 구립서초유스센터, (02)3486-0738

제 50차 마신부님 영국·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4(월)~8.14(월),
대·일반: 6.25(일)~8.6(일)
설명회: 5.13(토) 14:00, 대명성당
공통: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감사선물 · 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기백한의원
손발 저림, 허리, 어깨
무릎, 두통, 어지럼증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 산부인과 의원
여성건강처음부터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K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녜스) 010-5048-7739

리노한의원
내몸 다시 찾기 | RE-KNOW KOREAN MEDICINE CLINIC
허리 · 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면역치료,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치료
야간진료 : 화,목 9시
원장/한의학 박사 김 의 근(리노)
☎ 755-5575, 559-5255
범어대성당 1층 상가 (범어역 2번 출구)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
서은주 심리상담센터
서 은 주(젬마) 교육학 박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수퍼바이저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
☎ 053)754-7150 | 010-4321-1976
수성구 메트로팔레스1단지 정문앞 SH빌딩 5층
NAVER 서은주심리상담센터 검색

SINCE 1975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행사 | 모임

첫 토요일 성모 신심 소피정
일시: 5.6(토) 10:00
내용: 영성특강, 찬양미사, 안수,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 신부
버스운행: 영남대 4번 출구(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대구 다락방 5월 모임
일시: 5.7(일) 11:00~18:00
장소: 툿찡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교육 | 모집

교구청 조경시설 제초 봉사자 모집(들꽃회)
봉사기간: 연중 수시
내용: 교구청 전역의 화단, 뜰 제초작업
문의: 들꽃회 회장 이도선(모니카), (010)2533-4820

제2기 해외봉사단 모집
기간: 6.27(화)~7.6(목)
장소: 필리핀(사랑의선교회)
회비: 90만원(선착순 25명)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관덕정 영성 특강
일시: 5.13(토) 16:00
강사: 김정환(요한) 신부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
문의: 관덕정, 254-0151

무학연수원 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기간: 6.3(토)~4(일) 1박 2일
대상: 초등부 자녀를 둔 가족
참가비: 3인_6만원, 4인 이상_7만원
문의: (054)932-0620

대구가톨릭대학교 전문강좌 개설
개강 예정: 5월 넷째주 월, 수
과정: 아로마테라피, 노인생활 건강 지도사
다양한 자격증 및 교양과정 운영
문의: 대가대 평생교육원, 660-5555

2017 대가대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기간: 4.24(월)~5.12(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3(일반) / 850-3505~6 (교육) / 660-5512~3(특수)
http://www.cu.ac.kr(모집요강 참조)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입소 어르신 모집
내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곳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두리(크리스티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낙산묘원 묘주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비산성당, 564-1004

대구가톨릭대병원 인공지능 왓슨 도입
지역최초 도입
미래형 메디케어의 선두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문의: 650-3436 / (010)6625-3119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일자: 7월 30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대구가톨릭평화방송(FM 93.1) 5월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현해 들려주는 우리본당 이야기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5월 6일	5월 13일	5월 20일	5월 27일
황금본당	압량본당	다사본당	송현본당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춤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욱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 · 주사기 · 보호대 · 뜸 · 부항기
주열기 ·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안마기 · 실버카 · 산소치료기 · 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33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노루페인트
페인트도매납품, 건축내외부도장공사,에폭시,방수공사,
컴퓨터조색, 친환경인테리어(팬톤,듀럭스 수입페인트)
☎ 583-7391, 010-3507-0744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258 (2호선 성서공단역~계명대역사이)
노루표페인트잉크사 이영화(필립보) 이명희(소피아)

GARAM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전문공사
• 소방안전관리 대행
• 소방관련 기술교육
대표이사(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대표전화 053)600-8485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즈타워 B108호

운경재단
시지노인전문병원
신경계 재활전문 노인병원
원목 수녀님께서 상주합니다.
곽 동 환 (마르코)
☎053-812-1212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당뇨 고혈압!
합병증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연합내과
[인공신장실/건강검진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